



탐구 대상과 방법

배운 놈이 이 모양이나?

지금으로부터 50~60년 전만해도 시골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유학하는 일이 잦았다. 해외 유학이 아니라 국내 유학을 말한다. 해당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더 좋은 중학교를 선택해 도시 지역으로 유학한 경우이다. 지역 특성상 아직도 이런 유학생이 있다.

유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제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돕기도 하고 틈틈이 공부도 한다. 학부모들은 정작 본인들이 힘들어도 자식을 유학까지 시키는 이유는 배우지 못해서 열악했던 자신의 삶보다 더 나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이다. 그만큼 기대도 컸다.

그 때 있었던 일을 들은 이야기이다.

어떤 유학생이 방학을 맞이하여 집에 와 있었다.

마침 집에 제사가 있었는데, 그 집의 주인이 유학생인 아들에게 지방紙榜(종이로 만든 신주)을 쓰라고 하였다. 아들이 안 배워서 못 쓴다고 하니 “아니, 학교에서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느냐? 도대체 뭘 배우느냐?”하고, 실망스런 목소리로 한숨을 쉬며 친척 가운데 쓸 줄 아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다. 그의 아버지는 이번에는말로 친척의 손을 빌지 않고 아들이 쓰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고자 하였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며칠 뒤 그 유학생이 사소한 일로 동생과 다투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아니, 배운 놈이 이 모양이냐? 옛날에는 서당만 나와도 사람 구실을 했는데…….”라고 나무랐다. 그날 이후부터 이 유학생은 배운 게 죄가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한다.

학교에서 배웠다고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당시의 학교 교육이 앞서가는 서구식 문물을 따라 잡느라고 또 입시를 위한 지식 위주의 교육 풍토로 인하여, 유학생 아버지가 생각했던 그런 교육 현장이 아니었다. 도덕과 전통문화를 전수하는 교육은 아예 뒷전으로 밀렸다고 보면 되겠다. 이른바 명문 상급 학교에 몇 명이 진학했느냐가 해당 지역 사회에서 그 학교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는 글 가르치는 경사經師는 있어도 사람 되게 만드는 인사人師는 없다고 하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우리는 여기서 유학생의 아버지가 생각하는 배움과 유학생의 그것 사이에 미묘한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다. 유학생의 그것은 근대식 학문 분류에 따른 교과 지식의 획득과 기능의 연마에 해당한다. 아버지의 그것은 일상생활에 당장 써 먹을 수 있는 지식이나 기능 또는 태도

와 관련된다. 이처럼 배움 또는 학문에 대한 관점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구식 학문(study 또는 learning)과 유학의 그것 사이에도 개념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유학에서 말하는 학문의 목적과 내용은 어떤 것이며 그것과 수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더 나아가 마음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학문에서 어떤 도움이 가능할까? 동아시아 유학에서 말하는 학문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 고서 수양을 이야기할 수 없다.

학문이라는 말의 유래

어떤 종교 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이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도를 아십니까?”라고 말하며, 반 강제로 붙잡아 끌면서 도에 대해서 안내하겠다고 한다. 이들이 말하는 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들이 따르는 종교의 가르침일 것이다. 도는 ‘길’의 한자말로서 『논어』에도 자주 등장한다. 도에는 크게 자연의 길인 천도天道와 인간의 길인 인도人道가 있는데, 『논어』의 그것은 대부분 인도로서 그것을 자각하고 수양하는 일을 공자는 배움 곧 ‘학學’이라 불렀다. 『논어』 첫 장의 첫 구절부터 이 배움에 대한 이야기이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때의 배움이란 인간의 도리에 관한 내용으로 오늘날 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교과 지식과 거리가 있다. ‘때때로 익힌다’는 것은 그 도리를 실천하면서 복습한다는 뜻으로,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써 체득한다는 의미이다. 이 배움이 지식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논어』의 여러 곳에 보이는데, 가령 공자가 “젊은이는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집 밖에 나가면 공손하며 삼가고 미답게 하며 널리 여러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어진 사람을 친하게 지내야 한다. 이런 일을 행하고 힘이 남아돌면 문학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한 데서 배움이란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의 실천과 관계되는 일이다.

그런 일을 잘 한 뒤에 힘이 남아돌면, 지식 공부를 해도 좋다는 뜻이다. 문헌이란 글자는 원래 문명을 이루는 제반 제도와 예악禮樂과 문자 등을 뜻하며, 이른바 글공부도 거기에 속한다. 물론 『논어』에는 이 문과 함께 예禮를 배운다는 말도 등장하지만, 가장 올바른 의미의 배움은 인간의 도덕적 자각과 덕의 향상에 관한 인도이므로, 어느 곳에도 배움이 있다고 하겠다. 해서 공자의 학은 인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수양의 뜻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움이 전통이 되어 동아시아 전통사상을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학은 또 ‘문問’과 결합하여 ‘학문學問’이 되었다. 그것을 직역하면 ‘배우고 묻는 일’이 학문이다. 율곡 선생도 소개하지만 『논어』의 “널리 배우고[博學] 절실하게 묻는다[切問].”는 말에 등장하는데, 거기서 부사어를 빼면 바로 ‘학문’이다.

또 하나는 『중용』의 “널리 배우고[博學], 자세히 물으며[審問] 신

중히 생각하고[愼思] 밝게 분별하며[明辨] 독실하게 행한다[篤行].”라는 말의 박학博學과 심문審問에 나오는 말로서, 역시 부사어를 제거하면 ‘학문’이 된다. 북송의 정이는 이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만 빼도 학이 아니라고 했으니, 공자의 학이 여러 갈래로 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실천하는 일로 나누어졌다. 그렇게 되니 앞의 네 가지는 앎의 일, 마지막 ‘행한다’는 말은 실천으로 분류된다. 이렇듯 유가의 학문은 오늘날 우리가 배운 서양의 그것과 다름을 할 수 있다. 다만 서양의 그것을 근대전환기에 ‘학문學問’이라는 글자로 옮기고 학교에서 가르쳤으니, 서양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이라는 착시 현상이 생겼다. 어쨌든 사상의 흐름상 공자의 학이 앎과 실천의 문제로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랑의 이치 탐구

이렇게 공자의 배움이 크게 보아 앎(지식)과 실천(행동)의 문제로 분화되었으므로, 후학들이 마음공부로서 수양함에 있어서도 논리상 앎의 문제와 실천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밖에 없었다. 이 앎[知]과 실천[行]의 문제에 대한 관점을 철학 용어로 지행관[知行觀]이라 부른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앎이 먼저이고 실천이 나중[先知後行], 실천이 먼저이고 앎이 나중[先行後知], 또 앎과 실천이 하나로 통일된 것[知行合一], 그리고 동시에 나란히 이루어지는 것[知行竝進] 등으로 학

과와 학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는 일일이 따져볼 시간도 없거나와 사실 해봤자 무의미하다. 각자가 생각하는 얇과 실천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또 그들이 말하는 논리에 타당성도 분명히 있다. 가령 하나의 예만 보자. 효도와 공경의 도리를 모르고서 어떻게 부모께 효도하고 어른을 어떻게 공경할지 모를 것이다. 그런 논리에서 보면 아는 게 먼저 일 수 있다. 그런데 처음 배울 때 효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했더니 부모가 기뻐했다고 하자. 그런 일을 반복하다보니 그것이 결국 효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경우 실천이 먼저이고 아는 것이 나중이다.

율곡 선생의 경우는 동시에 나란히 이루어진다는 설을 지지한다. 곧 “이치를 탐구하는 것과 힘써 실천하는 일은 비록 두 가지 공부이지만, 동시에 나란히 진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앞서 이치 탐구를 주로 논하면서 또한 힘써 실천하는 뜻을 겸하여 말했다.”라고 하였는데, 동시에 진행된다는 의미는 새의 양 날개에 비유될 수 있다. 앞서 정이가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학문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다시 상기한다면, 얇과 실천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과 논리가 통한다. 그래서 둘이 동시에 나란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수양으로서 마음공부에 얇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기독교에서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앙을 실천하는 전제가 되는 것과 같다. 기독교와 달리 인격적 절대자를 믿지 않는 유학에서 알려고 하는 대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선생이 제시한 궁리窮理

라는 말 속에 이미 들어 있다. 곧 풀이하면 ‘이치를 궁구하다’는 뜻인데, ‘궁구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하다’로 풀다. 곧 이치를 탐구·연구하는 일이 되겠다.

그렇다면 또 이때의 이치란 무엇일까? 앞서 공자의 도가 인도임을 알았다면, 이치 또한 인도와 관련된 것임을 눈치 챌 수 있다. 예컨대 ‘산소 분자 한 개와 수소 분자 두 개가 합하여 물 분자 하나가 된다’는 따위의 물리적 이치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일이므로 천도에 해당한다. 곧 임금이 되는 이치, 신하기 되는 이치, 참다운 자식이 되는 이치, 부모다운 이치, 스승다운 이치, 제자다운 이치 등이 그것이다. 그걸 다 합치면 사람다운 이치가 아니겠는가? 공자의 가르침으로 연결하면 곧 인^仁을 탐구하는 일이다. 인이란 어질다·착하다 등으로 풀지만, 종합해 말하면 포괄적인 도덕 원리로서 ‘마음의 덕이요 사랑의 이치’로 해석한다.

이렇듯 유학자들은 그 인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로서 사랑의 이치라고 믿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므로 성선설에 따라 인은 선한 것이다. 이때의 인은 모든 가치를 대표해서 포괄하는 것이지만 그 하부 영역에 나아가면 충·효·제 등 제반 가치가 등장한다.

그래서 또 주희가 말하기를 “사람이 선에 밝지 못한 것은 사물에 나아가서 궁리하지 않아서, 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탐구의 또 다른 목적이 선을 밝히는 데 있음을 말하였다.

정리하면 탐구의 형식적 목적은 이치를 밝히는 것이지만, 그 내용

을 보면 인과 같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것이고, 윤리학적으로 말하면 선을 탐구하는 것이며, 학술 용어로 말하면 윤리·도덕적 가치를 탐구하는 일이다. 그래서 현대 학자들이 유학을 굳이 서양식 학문 분류로 말한다면 윤리학에 가깝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유학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오늘날의 철학·윤리학·정치학·문학·사학·법률학·교육학·예술 등 매우 넓어서 종합 학문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유독 송 대의 성리학과 명 대의 양명학이 공맹의 윤리관을 철학적으로 해석해 크게 부각시켰으므로, 그것들이 유학의 윤리학적 성격을 더 강화시키는 데 일조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방에 꿰뚫어 안다

유학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이치는 자연적 물리가 아니라 도덕적 원리로서 가치이다. 설령 그 이치가 딱히 윤리적인 것이 아닐 경우에도, 그 가치를 뒷받침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이치이다. 가령 개미나 벌이 여왕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임금과 신하의 예법이라고 해석하는 것 따위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이치를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가? 주희의 『대학장구』에 보면 점진적으로 알아가다가 그 안 것이 오랫동안 많이 쌓이다 보면, 이른바 ‘한방에 훤히 꿰뚫어 안다’는 활연관통豁然貫通의 경지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주희의 이런 주장은 그의 스승 이동李侗의 영향인

것으로 보는데, 율곡 선생이 이동의 글을 인용한 것은 그런 의도이다. 아래는 그의 말이다.

처음 학문할 때는 먼저 마음을 보존하여 다른 일에 부림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한 가지 일을 만나면 반복해서 그 일에 파고들어 이치를 탐구한다. 이 한 가지 일이 시원하게 풀리는 때를 기다린 뒤에 차례차례 조금씩 나아가 다른 일을 탐구해야 한다. 오랫동안 이렇게 하여 쌓인 것이 많아지면, 가슴속에 저절로 상쾌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글자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랫동안 쌓인 것이 많아지면 가슴속에 저절로 상쾌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은 바로 주희의 활연관통의 경지와 다르지 않다. 이는 예전 텔레비전 프로에서 점쟁이로 분장했던 어느 개그맨의 ‘척 보면 압니다’라는 유행어와 그 구조가 닮아 있다. 점쟁이에게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 점 보러 오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금방 알아채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그런데 훗날 다른 유학자는 주희의 이 견해를 호되게 비판한다. 본성을 덮어 가리는 기질의 병폐를 고치면 본성이 잘 드러난다고 말해 놓고, 또 이치를 점진적으로 알아 한방에 통한다고 주장하는 설이 서로 모순이라는 조선 후기 심대윤沈大允(1806~1872)의 비판이 그것이다.

게다가 윤리적 가치가 이치로서 본성에 선천적으로 내재한다는 관점은 가치가 경험으로부터 형성된다는 조선 후기 기철학자 최한기崔漢綺(1806~1877)와 현대 도덕 교육론의 입장과 다른 관점이다. 거기에

따르면 인간이 오랜 기간 동안 환경과의 관계에서 경험을 평가하여 가치가 형성된다고 한다. 따라서 문화와 경험이 다르면 사람들 사이의 가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행동의 지침이 되는 가치는 경험이 진보하고 성숙해감에 따라 진보하고 성숙해 간다고 한다. 과거에 당연하게 여겼던 남존여비나 노비제 등의 계급과 차등을 인정하는 사상도 경험의 진보에 따라 성숙한 것으로 변해가지 않던가?

하지만 이런 견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치를 탐구하는 일은 여전히 윤리적 행위를 실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점에서 지지받을 수 있다. 사실 본성에 내재한 가치라는 것도 최한기가 지적했듯이 경험 이후의 일로 여긴다면, 곧 인간이 오랜 기간 동안 환경과의 관계에서 경험을 평가하여 가치를 내면화했다는 관점에서 볼 때,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가치가 문명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문화에 따른 상대적인 것인지 보편적인 것인지 살펴야 할 점은 여전히 남는다.

아무튼 가치관이 다르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내가 믿는 가치만 옳고 타인의 그것이 그르다고 여기면 갈등이 생긴다. 그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지만, 각자의 가치가 보편타당하게 설득력이 있는지 토론해서 결정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초등학교생과 대학원생의 수준 차이에서 토론이 가능하겠는가? 결국 유유상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당신이 적어도 지성인이라고 자부한다면 철학자 칸트가 말했듯이 말과 행위가 언제나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맞도록 행동해야 한다.